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

The Effects of Working Days of Married Men and Women on Their Time Use on The weekend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이종희*

고려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연숙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Lee, Jong-Hee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Professor : Lee, Yon-Su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ifferent working days of married working men and women on their time use on the weekend. The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1999 was used. Among the total sample of 17,000 families, 7680 samples who are married, employed, and more than 20 years old are selected for the analysis.

This study has resulted in two major findings. (1)the working days affect on the time use on the weekend. The pattern is somewhat different by sex. The women spend more time in leisure and houseworks on the weekend as the working days decrease. However, the men do not spend more time on doing houseworks as the working days decrease. The time spent on leisure and physiologic time is increased both men and women as the change of workweek from the biweekly five-day to the weekly five-day; (2)if the five-day workweek and more flexible hours are introduced, they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workers. This fact shows positive view at the last stage of legislation of the five-day workweek .

▲ 주요어(key words): 근무일(Working Days), 주말 생활시간사용(Time Use on the Weekend), 여가시간(Leisure Time), 주5일근무제(the Five-Day Workweek)

1. 서론

여가 중심시대에 진입하면서 주말은 여가활동의 중심적인 터전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가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주말은 단지 주중의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의 개념이 주중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가문화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레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출현으로 여가활동에 있어서 주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특히 여가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다. 시간에 얽매이는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있어 주말은 여가활동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80년대 후반 이른바 신세대 부류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주말의 풍속도가 더욱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기업의 토요일 격주휴무제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직

장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선행연구들(한국노동연구원, 2001; 삼성경제연구소, 2001; 日本レジャーサンタ, 2000)은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생산성 증대와 산업 재해율의 감소 외에도 노동자의 삶의 질 자체가 향상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개인의 여가시간이 늘어나 자기개발 노력이 가능해지고, 주말시간이 자유로워져서 직장 중심 생활에서 가족 중심 생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것에서도 나타나는데, 법정노동 시간을 현재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8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휴일활용방안에 대하여 가족과의 시간, 취미, 자기개발 등을 위

* 주저자: 이종희(E-mail: semidouble@hanmail.net)

한 여가시간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Gorz(1994)는 생산력의 발전은 필요노동량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자유시간으로 전용되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 낼 수는 없으며, 이러한 자유시간이 “개인의 자유로운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노동시간의 절약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반드시 자유시간 혹은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보다 강도 높은 노동과 효율성의 증대를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취업상태의 기혼여성은 선행연구(성유진, 1995; 한경미, 1991)에서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역할로 시간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러한 시간 갈등의 해결은 취업기혼여성을 위한 국가적인 복지시설이 완비되지 않는 한 개인과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일한 주휴무제에서도 성별에 따라, 그리고 각 가족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생활시간을 영위하고, 그 가운데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상이한 주휴무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기혼 남녀의 생활시간의 구조와 여가시간을 분석하며, 앞으로 가속화될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적인 노동시간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전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요구된다.

시간사용연구는 가정학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연구영역의 하나로서 1960년 후반 이후 최근까지 시간사용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치중했던 경향이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구주제가 더욱 정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일환으로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주5일휴무제와 주5일교육제도과 같은 사회제도 변경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취업자들의 생활시간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러한 사회제도의 변화는 취업자의 1일 생활시간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주휴무제도에서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취업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 구조와 여가활동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취업자들의 생활시간 실태를 파악하여, 생활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주5일 근무에 관한 논의가 임금과 노동시간의 유연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5일 근무를 통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근로시간 단축이 생활에 미치는 효과

근로시간 단축이 생활에 미치는 첫 번째 효과는 근로형태의

변화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종전보다 짧은 시간 내에 끝마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업종과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문화와 근로형태를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해 집중도를 높이고 본인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1).

둘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증대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정기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원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 측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강도를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성과 위주의 인사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여가시간을 그저 즐기기보다는 어학, 정보기술(IT) 등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에 투자하고 이는 학습시장 확대에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예상된다(LG 경제연구소, 2000).

셋째 지역사회에의 참여 활동 증가이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적인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동물'로 불렸던 일본 노동자들도 주 40시간 노동이 97년에 전 사업장에 정착되면서, 주말에 학습, 건강 등 자신을 갈고 닦는데 할애하는 것 이외에, 지역사회활동이나 장애인 보호, 자원재활 참여 등 이른바 '사회성 여가'에 참여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의 기업들도 근로자들의 여가시간 확대 요구를 점차적으로 수용하면서 '재충전 휴가'와 '자원봉사 활동 휴가'라는 새로운 휴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일종의 안식년 휴가인 재충전 휴가는 각종 휴가제도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67%가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휴가(사회복지활동이나 비정부기구활동 참가 등)는 28.2%가 실시하고 있다(日本 レジャー センタ, 2000).

넷째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이다. 주 5일 근무제의 완전한 정착을 이룬 유럽인의 여가 생활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약간씩은 다르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토요일의 취미생활과 일요일의 종교생활'로 집약할 수 있다. 토요일의 취미생활에는 주중에 바빠서 미루었던 집안일도 포함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 달러 안팎에 이를 정도로 풍족함을 누리고 있으나,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맞벌이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이들만의 독특한 주말 문화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한겨레 21, 2001).

2. 주휴무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

1)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

사업이 계절적 업무이거나 또는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 보다 유연하게 노동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다. 변형근로시간제에는 주단위 변형근로, 월단위 변형근로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

(1) 2주 단위 변형근로시간제(격주휴무제)

이를 흔히 격주휴무제라고 부르며, 이와 관련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1항으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한 주에 1주44시간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전 법에 의한다면 토요일 5시까지 일하는 주는 1주 48시간을 일하는 것이 되어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불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산수당을 줄 필요가 없게 되어 사용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2) 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

이것은 제1항의 2주단위 변형근로시간제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취업규칙에 의해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2항과 제 52조 제2항으로, 전자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 별 근로시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1주 44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후자는 "1월 이내의 단위기간 평균시간이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많이 일하는 주에는 1주 56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고 따로 가산수당을 줄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변형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변형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에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2) 주5일 근무제

2001년 현재 노동계와 정치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 49조인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아직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재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도입을 지지하는 경총 등 경제단체간의 갈등과 함께 전경련 회원사들간에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룹 내에서도 주5일 근무

제 도입에 따른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인사·노무담당 부서와 기획 및 재경부서간에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데, 특히 운송, 레저, 백화점 등 내수 비중이 높은 그룹들의 경우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생산현장의 경우 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임금 감축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내외경제신문, 2002).

3) 휴일·휴가일수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에 2일간의 주휴무일을 주고, 연간 20~3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부여받은 휴가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간 휴일·휴가의 총 일수가 적으며, 부여받은 휴가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휴일·휴가 부여일수는 30~40여 일이 적어, 실제 사용일수로는 약 50여 일이 적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연간 2,497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민주노총, 2000).

3. 생활시간의 개념과 분류

개인이 매 시간, 일, 주, 월, 연, 그리고 생애 등의 일정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용어는 생활시간(time use), 시간예산(time budget), 시간배분(time allocation), 시간사용(time use) 등 다양하다. 이들 용어의 의미는 유사하지만 국가와 학문 영역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다(김외숙 외, 2000). 생활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송井光映(1981)은 "생명의 유지 계승을 위하여 어떤 형태의 기능이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의해 영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서병숙·임정빈(1983)은 "1일의 생활내용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라 하였다. 즉 "시간을 다양한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시간사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1일 24시간뿐만 아니라 생애동안의 시간사용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생활시간의 분류는 연구목적과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Feldman과 Hornik(1981)은 생활시간을 크게 노동과 노동이 아닌 일로 분류하고 후자에 필수적 일, 가사노동, 여가를 포함시켰다. Robinson(1976)은 크게 의무적 활동시간, 자유시간으로 나누고 의무적 활동시간에 노동, 가사노동, 자녀양육, 개인적 필요, 교통시간의 영역을 포함시키고, 자유시간에는 조직활동과 교육, 대중매체이용, 사회·오락적 시간을 포함시켜 각각을 36개의 영역으로 세분하고, 또 각각을 더 세분하여 생활시간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1985)는 생활행동을 생활필수, 노동과 여가로 구분하였으며, 한·일 공동연구로 이루어진 서울과 동경의 맞벌이 부부의 생활시간과 생활의식 조사(이기영·伊藤セツ, 2001)에서는 생활시간을 생리적 생활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적 생활시간, 사회

적·문화적 생활시간으로 분류하였다.

4. 여가의 개념과 유형

1) 시간으로서의 여가

일반적으로 여가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자유시간(residual/ free time), 자유활동(free activity), 존재 또는 경험의 상태(a state of being) 이다(김광득, 1997). 이 중에서 처음의 두 가지는 객관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접근방식의 요소이고, 세 번째의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요소이다. 이 중 여가를 시간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 여가시간을 다른 시간과 명확히 구분하여 '손쉽게 양화'할 수 있으며 시간배분결정에 대한 긍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원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정영금, 1997). 본 연구에서는 여가를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2) 여가의 유형

Kaplan(1960; Parker, 1993 재인용)은 여가의 유형을 여가의 가치지향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구분의 기준으로 첫째는 여가활동과정에서 개인에 지향되어 있는가 아니면 집단에 지향되어 있는가? 둘째는 여가활동과정에서 규칙을 어느 정도까지 필요로 하는가? 셋째는 여가활동과정에서 새로운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추구하는가? 이다. Lutzin(1973; 김광득, 1997 재인용)은 여가활동을 동기 및 그 표현형태에 따라 신체적 활동, 사교적 활동, 문화적 활동, 자연적 활동, 정신적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KBS와 서울대 신문연구소가 1980년대에는 격년마다 실시하였고, 1990년대부터 5년마다 실시해 온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는 여가활동을 ①관광, 구경, 감상 ②스포츠 ③승부놀이 ④행락, 산책 ⑤배워두어야 할 일, 취미 ⑥기능, 자격공부 ⑦어린이와의 유희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한·일 공동으로 수행된 「생활시간과 생활의식 -동경·서울 셀러리맨 부부의 조사」(伊藤 セツ·天野寛子·이기영, 2001)에서는 여가시간을 텔레비전시청·라디오청취, 신문·잡지구독, 독서, 취미·오락, 학습·연수, 스포츠, 가족과의 교제, 가족 외 부인과의 교제, 사회적 활동·소비자활동, 신앙·종교적 활동, 통근을 제외한 이동, 기타의 1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1999년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생활시간을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재구성하여, <그림 2>와 같이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여가시간,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성차

여성과 남성의 시간사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사노동시간, 유급노동시간, 여가시간 간의 관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차츰 여가시간 배분에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Nock & King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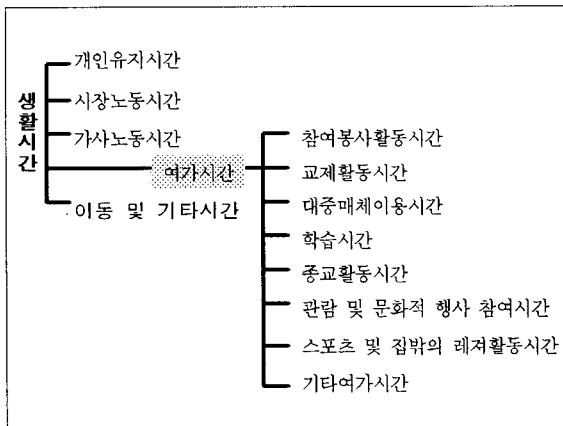
1989; Shaw, 1985). 가사노동시간의 감소가 없다면 여성의 유급노동시간 증가는 여가시간 감소와 관련될 수 없으며(Gentry & Doerring, 1979), 남성의 경우 여가시간은 유급노동 시간이 더욱 짧아지는 일반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무급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할애하는데, 이는 여성과 남성의 여가시간 소비는 부인의 여가시간변화가 남편의 여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와 상호연관성을 갖는다(Deem, 1986).

여가시간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여가시간이 적고 그리고 직업을 가진 여성은 직업이 없는 여성보다 여가시간이 적다. 가족 또는 직업상의 지위와 같은 상황적인 요인들이 남성보다 여성의 여가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Kelly, 1983). Shaw(1982)는 21-62세에 이르는 60쌍의 미국 부부를 조사하였는데, 노동시장 및 가사로 인하여 남녀의 여가시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사노동의 양이 많고 배우자의 근무시간이 많을 수록 부부의 여가시간은 줄어드는데, 여성의 경우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여가시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신의 총근무시간이며, 가사노동이 주는 영향은 미미했다. Pfeffer와 Davis(1982; Shelton, 1992, 재인용)는 46세에서 71세의 성인의 여가시간을 조사하였는데, 46-55세 사이의 여성이 그들의 여가시간에 대해 가장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층의 여성들은 가족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자녀들이 커짐에 따라 직업을 다시 갖는 경향이 있었는데, 불만족은 주부이자 어머니이며 직업인인 여성 자신이 자신의 개인적 여가가 가족의 여가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선호하는 여가활동도 여성과 남성과 다른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여가활동을 조사한 연구결과(김사현, 1997)에 따르면 남성의 스포츠 선호도가 10.8%로 여성(4.7%)의 2배 이상이었으며, 취미 및 교양 부분에서는 여성이 22.0%로 남성(13.4%)의 거의 2배에 달했다. 40세 이상인 성인남녀의 여가활동을 조사한 Havinhurst(1975)의 연구에서도 남성들은 스포츠, 낚시, 정원 가꾸기 등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는 반면 여성들은 공식, 비공식 모임 및 독서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Gordon, Gaitz와 Scott(1976)는 20-94세의 미국 성인을 조사하였는데, 인생 주기의 거의 모든 시기에 남성들은 음주, 운동, 외부활동, 여행, 주요 주제토론, 경기 관람 등에 여성보다 많이 참여하는 반면 여성은 문화활동, TV 시청, 휴식 그리고 요리 및 집안 장식 등에 보다 많이 참여하였다. 즉 여성이 내부적(가정에 기반을 둔) 참여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외재적·사회적 형태의 여가에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개인 유지	수면	참여 봉사 활동	이웃,친분있는 사람돕기
	식사 및 간식		지역공동체 활동
	개인관리		사회참여활동
일	건강관리(의료적)	교제 및 여가 활동	자원봉사
	고용된 일·자영업		교제활동
	무급가족종사일		대중매체 이용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교제 및 여가활동관련 물품 구입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구직활동		일반인의 학습
	일 관련 물품구입		스포츠, 집밖 레저활동
	기타 일 관련 행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학습	학생의 학교학습	이동	종교활동
	학생의 학교 외 학습		기타 여가관련활동
가정 관리	학습관련 물품구입	기타	개인유지 관련이동
	음식준비, 정리		출, 퇴근, 일 관련 이동
	의류관리		통학 및 학습관련
	청소 및 정리		가정관리 관련
	집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가정경영		교제활동 관련 이동
기타 가사일	그 외 여가활동 관련		
가족 보살 피기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기타	기타 이동
	배우자 보살피기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생활시간조사 설문지 기입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그 외 기타
	그 외 가족 보살피기		

<그림 1> 통계청(1999)의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그림 2> 본 연구의 생활시간과 여가활동분류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여성과 남성의 주말 생활시간구조는 어떠한가, 남녀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여성과 남성의 주말 여가시간은 어떠한가, 남녀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통계청이 전국 약 17,000가구의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1999년 9월 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국민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취업자, 기혼자, 20세 이상인 성인으로 조사대상자를 한정시켰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수는 총 7680명이었다. 분석을 위해서 SAS 통계 package가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행동의 평균시간, 행위자율, 행위자 평균시간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주휴무제에 따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생활시간분배와 여가시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주휴무제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을 하였고, 사후검증을 위하여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휴무제는 주1회휴무, 격주휴무, 주2회휴무, 2주1회휴무, 수시휴무, 기타휴무로 나뉘며, 주휴무제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명목척도들로 측정된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주휴무제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단위 : 명

	휴가 제도						계	χ^2
	2주 1회 휴무	1주 1회 휴무	격주 휴무	1주 2회 휴무	수시 휴무	기타 휴무		
성별							5135	175.33 ***
남성	311	2892	399	229	999	305	5135	
여성	172	1260	105	180	750	78	2545	
연령								
20대	57	422	56	45	119	26	725	246.74 ***
30대	204	1721	244	153	540	124	2977	
40대	128	1248	164	110	524	120	2294	
50대 이상	94	770	40	101	566	113	1684	
교육수준								
중졸이하	161	919	61	111	810	156	2218	682.99 ***
고졸이하	243	1725	238	172	745	167	3290	
대학이상	79	1508	205	126	194	60	2172	
자동차								
유무	309	2900	417	248	956	206	5036	220.17 ***
미취학 아동보유								
유무	152	1444	203	136	458	94	2487	66.97 ***
직장 지위								
근로자	420	3794	493	394	1501	383	6985	147.58 ***
자영자	63	358	11	15	248	0	696	
근무지 ^a								
직장내부	399	3574	470	354	1129	340	6266	736.04 ***
직장외부	21	176	23	37	129	36	422	
가내하청	0	35	0	2	198	6	241	
기타	0	9	0	1	45	1	56	
계	483	4152	504	409	1749	383	7680	

*P < .05 **P < .01 ***P < .001 a: 결측치=696

2. 주휴무제에 따른 취업 기혼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 구조

1) 토요일
취업기혼여성의 토요일 생활시간이 주휴무제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표 2>에 나타나 있다.

그 결과 주휴무제에 따라 시장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개인유지시간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유지시간의 행위자율은 100%, 여가시간의 행위자율이 96%를 상회하고 있다(2주1회 휴무자 제외). 시장노동시간은 주휴무제 별 행위자율의 차이가 컸으며, 주2회휴무자의 60%는 시장노동에 참여하며, 전체조사대상자의 평균시장노동시간은 2시간 48분이며,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평균시간노동시간은 4시간 39분이었다.

<그림 3>에서 X축은 주휴무제를 구분한 것이며, 0점에서 2주1회휴무→주1회휴무→격주휴무→주2회휴무로 갈수록 규정된 주중의 휴무일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Y축은 해당 생활시간의 시간량(분)을 의미한다.

시장노동시간은 2주1회휴무 →주1회휴무 →격주휴무→ 주2회휴무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재택근무나 가내 하청업에 종사하는 수시휴무자나 기타휴무자의 경우는 시장노동시간이 다른 주휴무자의 경우보다 높았다.

여가시간은 주2회휴무자의 경우가 가장 길며(약 4시간 28분), 2주1회휴무자의 여가시간이 가장 짧았다(약 3시간 3분). 한편 가사노동시간은 주2회휴무자의 경우 4시간 27분이었으며, 이는 2주1회 휴무자의 2배 이상인 수치이다. 따라서 시장노동시간의 감소에 비해 여가시간의 증가는 크지 않으며, 이는 시장노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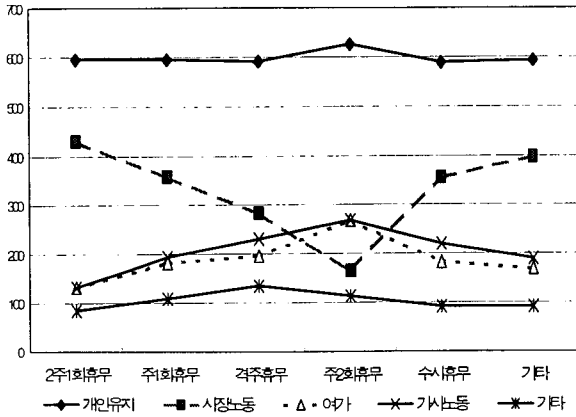
<표 2> 취업 기혼남녀의 주휴무제별 토요일 생활시간구조

주휴무제 생활시간		주휴무제												F-value	
		2주1회 휴무		주1회 휴무		격주 휴무		주2회 휴무		수시 휴무		기타 휴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개인 유지 시간	행동평균	595.2	592.2	601.4	595.8	597.9	591.4	631.7	625.5	611.3	588.1	568.3	593.2	6.37 *	2.43 *
	duncan	B	B	B	B	B	B	A	A	B	B	C	B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장노동시간	행동평균	499.0	497.6	393.1	357.7	345.7	283.9	291.4	166.2	446.6	356.4	505.2	396.0	30.64 ***	26.60 ***
	duncan	A	A	C	B	D	C	E	D	B	B	A	B		
	A	97	98	96	95	84	80	76	60	90.8	87	93	84		
여가 시간	행동평균	203.7	132.7	270.0	183.2	302.9	196.9	337.9	268.2	248.2	182.7	234.0	169.7	15.27 ***	10.90 ***
	duncan	E	C	C	B	B	B	A	A	DC	B	D	CB		
	A	99	91	99	98	100	96	99	100	99	96	98	100		
가사 노동 시간	행동평균	21.8	132.5	32.6	193.2	42.1	232.0	49.5	267.3	22.6	220.5	26.6	190.0	6.97 *	12.88 ***
	duncan	C	C	CB	B	BA	BA	A	A	C	B	C	B		
	A	46	96	47	99	53	100	56	100	36	97	35	99		
이동 및 기타 시간	행동평균	120.3	84.9	142.8	109.9	151.4	135.7	129.5	112.8	111.3	92.2	105.9	91.0	14.42 **	7.42
	duncan	DC	B	BA	B	A	A	CB	B	DC	CB	D	CB		
	A	99	98	99	98	99	100	98	96	98	95	98	99		

*A : 행위자율 (%) *P < .05 **P < .01 ***P < .001
*B : 행위자의 평균 (분)

간의 감소에 따른 가용시간이 가사노동시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위: 분



<그림 3> 취업기혼여성의 주휴무제별 토요일 생활시간구조 추이

취업 기혼남성의 생활시간이 주휴무제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시장노동시간의 행위자율은 주휴무제별 차이가 컸다. 주2회휴무자 중 76%가 시장노동에 참여하며, 이들의 평균 시장노동시간은 약 6시간 25분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은 주2회휴무자가 가장 높은 56%의 행위자율을 보였고, 수시휴무자와 기타휴무자는 36%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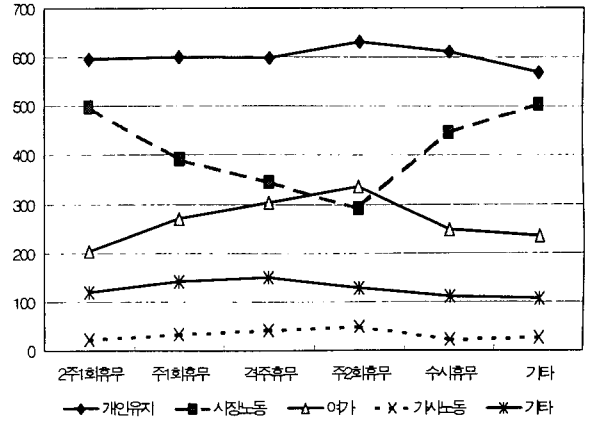
<그림 4>은 취업기혼남성의 일요일의 생활시간이 주휴무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추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시장노동시간은 2주1회 휴무 → 1주1회 휴무 → 격주 휴무 → 주2회 휴무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2회 휴무자의 경우는 평균 4시간 51분, 2주1회 휴무자는 8시간 18분의 시장노동을 하고 있다.

여가시간은 시장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라 (2주1회 휴무→1주1회휴무→격주휴무→주2회 휴무) 증가하며, 시장노동시간의 증가에 따라 (주2회휴무→수시휴무→기타휴무) 여가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가시간량은 주2회휴무자의 경우 가장 긴 5시간 37분 정도였으며, 2주1회휴무자가 3시간 24분으로 가장 짧았다.

가사노동시간은 2주 1회휴무자, 수시휴무자, 기타휴무자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1주1회휴무→격주휴무→주2회휴무로 갈수록 가사노동이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모든 주휴무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주2회 휴무자(49.5분)를 제외하고, 대부분 30분 내외에 그치는 등 다른 생활시간에 비해 현저히 짧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남성의 시장노동시간은 여성보다 길며, 남성의 시장노동시간의 감소분은 여가시간과 수면 등의 개인유지시간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위자율을 살펴보면 시장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편이었다.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남성의 2배에 달했으며, 수시휴무자와 기타휴무자는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분



<그림 4> 취업기혼남성의 주휴무제별 토요일 생활시간구조 추이

2) 일요일

취업기혼여성의 일요일 생활시간이 주휴무제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가 <표3>에 나타나 있다. 개인유지,시장노동, 여가, 가사노동의 시간량이 유의수준 .001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개인유지시간은 격주휴무자가 가장 길고(약 11시간 22분), 기타휴무자가 가장 짧은 것 (약 9시간 51분)으로 나타났다.

개인유지시간의 행위자율은 100%이었으며, 시장노동시간은 주휴무제별 차이가 컸으며, 주2회휴무자의 행위자율은 33%로 행위자평균시간은 4시간 12분이었다. 수시휴무자와 기타휴무자의 행위자평균시간은 각각 6시간 37분, 7시간 4분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가사노동의 행위자율은 97%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요일 취업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구조가 주휴무제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추이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시장노동시간은 2주1회휴무 → 1주1회휴무 → 격주휴무 → 주2회 휴무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주1회 휴무자, 격주휴무자, 주2회 휴무자 모두 일요일은 휴무일임에도 실제로는 2시간 내외의 시장노동을 하고 있다. 한편 재택 근무를 하거나 가내하청업에 종사하는 수시 휴무자나 기타휴무자의 경우는 일요일의 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휴무자의 경우보다 행위자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동의 평균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시간은 시장노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며, 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수시휴무자의 경우 휴무를 하는데 있어 비교적 자기결정권이 크고, 융통적인 태도 다른 휴무자의 여가시간보다 짧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긴 시장노동시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시간은 격주휴무자와 주2회휴무자가 가장 길었으며

<표 3> 취업 기혼남녀의 일요일 생활시간구조

주휴무제 생활시간		2주1회 휴무		주1회 휴무		격주 휴무		주2회 휴무		수시 휴무		기타 휴무		F-Value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개인 유지 시간	행동평균	649.5	611.9	675.2	665.9	695.0	681.6	652.5	664.5	628.8	620.3	585.4	591.0	23.12	12.13
	duncan	CB	B	BA	A	A	A	CB	A	C	B	D	B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시장 노동 시간	행동평균	338.4	429.8	141.5	145.1	106.7	77.9	204.5	83.0	350.9	268.8	405.6	368.8	97.60	44.26
	duncan	B	A	D	C	D	C	C	C	B	B	A	A		
	A	68	87	40	40	29	29	56	33	77	68	83	80	***	***
여가 시간	행동평균	303.5	146.2	429.5	266.7	425.4	259.8	424.4	310.1	304.3	233.4	299.2	215.0	46.55	13.34
	duncan	B	D	A	BA	A	CB	A	A	B	CB	B	C		
	A	100	98	99	99	99	95	100	100	99	98	99	95	***	***
가사 노동 시간	행동평균	33.1	166.0	62.0	267.7	67.2	288.2	48.4	287.8	30.7	226.2	34.7	152.0	16.82	14.96
	duncan	DC	C	BA	BA	A	A	CB	A	D	B	DC	C		
	A	46	98	66	99	71	100	56	100	43	97	43	95	***	***
이동 및 기타 시간	행동평균	115.4	86.0	131.8	94.5	145.8	132.5	110.2	94.5	125.2	91.2	115.1	113.3	2.91	3.11
	duncan	B	B	BA	B	A	A	B	B	BA	B	B	BA		
	A	95	100	94	93	98	98	95	91	98	94	99	100	*	**

*A : 행위자율 (%)

*P < .05 **P < .01 ***P < .001

*B : 행위자의 평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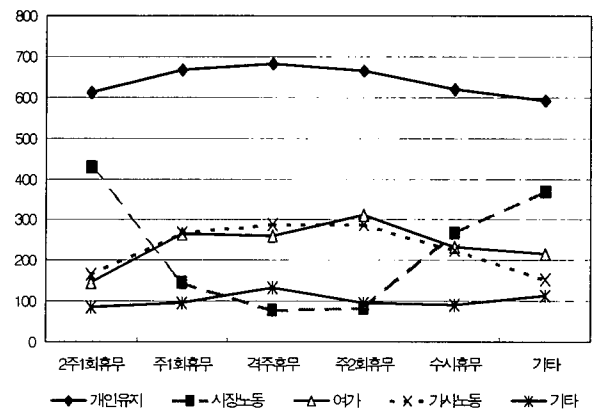
시장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한 가용시간의 일부가 가사노동의 시간으로 이용되면서 여가시간의 증가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의 주휴무제는 주1회휴무에서 격주휴무를 거쳐 주2회휴무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격주휴무자는 주1회휴무자보다 총 생활시간 중 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비율이 각각 4.7%(약 1시간 8분)와 0.5%(약 7분) 낮으며, 개인유지시간, 가사노동시간, 기타시간은 각각 1.1%(약 16분), 1.4%(약 21분), 2.6%(38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하여 현재 토요일 4시간의 근로를 하도록 정해진 주1일휴무제에서 시장노동을 하고 있는 취업 기혼여성이 격주 토요일마다 유통적인 근로시간을 갖게 되는 격주휴무제에서 시장노동을 하게 될 경우 시장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해 증가된 가용시간이 개인유지시간과 가사노동시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2회휴무자는 격주휴무자의 경우 보다 총 생활시간 중 개인유지시간의 비율이 1.1%(약 17분), 여가시간의 비율이 3.5%(약 50분)증가하며, 가사노동시간의 비율은 1%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시장노동시간의 비율은 오히려 0.4% 증가하는데 이는 주2회휴무자의 행위자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기혼남성의 일요일 생활시간이 주휴무제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시장노동시간의 행위자율은 주휴무제별 차이가 컸으며, 여가시간의 행위자율은 99%이상으로 거의 모든 조사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취업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조가 주휴무제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추이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시장노동시간은 2주1회휴무 → 주1회휴무 → 격주휴무 순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주2회휴무자 → 주2회휴무 → 수시

단위: 분



<그림 5> 취업기혼여성의 주휴무제별 일요일 생활시간구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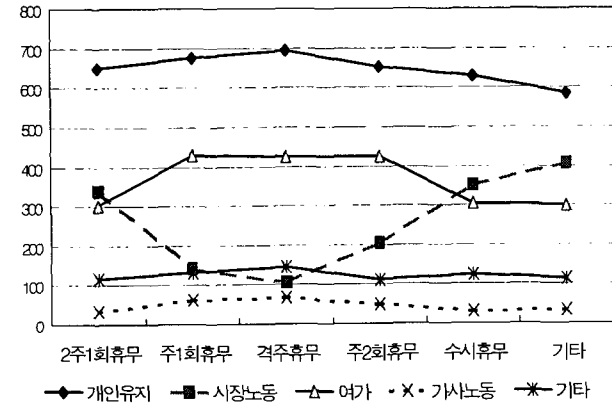
휴무 순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주1일휴무제, 격주휴무제, 주2회휴무제가 일요일을 휴무일로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장노동에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택근무를 하는 수시휴무자나 기타휴무자의 경우는 시장노동시간이 각각 5시간 50분, 6시간 46분으로 다른 주휴무자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은 시장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라 증가하며, 시장노동시간이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사노동시간은 격주휴무자가 가장 긴 1시간 7분이며, 수시휴무자가 30.7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하여, 대체로 1시간

을 넘지 않는다.

단위: 분



<그림 6> 취업기혼남성의 주휴무제별 일요일 생활시간구조 추이

한편 격주휴무자는 주1회휴무자보다 총 생활시간 중 시장노동시간의 비율이 2.4%(약 35분) 짧으며, 개인유지시간, 기타시간

은 각각 1.4%, 0.9%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시장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해 증가된 가용시간이 대부분 수면 식사 등의 개인유지시간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2회휴무자는 격주휴무자의 경우 보다 총 생활시간 중 개인유지시간의 비율이 3%(약 43분), 가사노동시간의 비율은 1.3%(약 19분)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시장노동시간의 비율은 6.8%로 증가하게 되고, 여가시간의 비율은 변함이 없다.

3. 주휴무제에 따른 취업기혼여성과 남성의 주말 여가시간

1) 토요일

취업 기혼여성의 토요일 여가활동별 시간이 주휴무제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주휴무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여가활동시간은 교제활동시간, 대중매체이용시간, 참여봉사활동 시간이었다.

행위자율은 대중매체이용과 교제활동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

<표 4> 취업 기혼남녀 주휴무제별 토요일 여가활동시간

단위: 분

주휴무제	행동평균 duncan	2주회 휴무		주1회 휴무		격주 휴무		주2회 휴무		수시 휴무		기타 휴무		F-Value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참여 봉사 활동	행동평균	0.0	0	0.0	0.0	0.0	2.0	0.0	10.6	0.0	3.1	1	0	1.90	3.86 **
	duncan	A	B	A	B	A	B	A	BA	A	B	A	B		
	A	6	0	10	0	0	4	0	9	20	2	1	0		
교제 활동	행동평균	27.6	35.1	53.5	41.7	55.7	53.7	63.5	68.8	47.0	39.1	45.0	37.9	5.24 ***	5.08 ***
	duncan	C	B	BA	B	BA	BA	A	A	B	B	B	B		
	A	66	65	70	65	69	67	73	72	59	57	59	28		
대중매체 이용	행동평균	107.1	75.4	132.0	97.1	156.3	110.0	165.6A	127.3	124.6	101.2	107.1	106.3	9.24 ***	3.36 **
	duncan	C	B	B	BA	A	A	A	A	CB	BA	C	A		
	A	93	85	90	85	94	82	88	92	89	82	81	41		
학습	행동평균	1.3	0.3	5.5	0.9	5.2	2.9	7.4	2.4	0.9	0.8	7.6	0	3.26 **	1.05
	duncan	B	A	BA	A	BA	A	A	A	B	A	A	A		
	A	2	1.3	5	1.3	5	4	7	3.4	1	2	4	1		
종교 활동	행동평균	1.3	2.0	4.3	10.2	2.5	4.7	8.8	18.9	2.6	6.3	5.0	0	1.65	2.04
	duncan	B	B	BA	BA	B	BA	A	A	B	BA	BA	B		
	A	2	3	4	8	4	6	8	11	3	6	3	0		
관람	행동평균	0.0	0.1	1.5	1.3	1.6	2.2	1.1	0.1	0.7	1.4	0.3	1.3	0.94	0.36
	duncan	A	A	A	A	A	A	A	A	A	A	A	A		
	A	0	1	1	1	1	2	1	1	1	1	1	1		
스포츠	행동평균	17.4	2.4	24.2	7.6	27.4	4.5	37.8	13.8	20.3	7.9	23.7	2.4	2.30 *	1.51
	duncan	B	B	B	BA	BA	BA	A	A	B	BA	B	B		
	A	20	8	30	8	33	6	38	11	24	6	29	2		
기타 여가	행동평균	46.3	17.5	48.5	23.8	44.9	16.9	60.0	26.4	49.7	23.0	44.0	21.8	0.94	0.66
	duncan	BA	A	BA	A	B	A	A	A	BA	A	B	A		
	A	65	44	65	44	57	31	72	52	74	46	66	25		

**A : 행위자율 (%)

*P < .05 **P < .01 ***P < .001

*B : 행위자의 평균 (분)

다. 주2회휴무자의 경우 전 영역의 여가활동에서 높은 행위자율을 보였으며, 행위자들의 평균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2주1회휴무 → 주1회휴무 → 격주휴무 → 주2회휴무 순으로 총 여가시간은 증가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대중매체이용시간은 주2회휴무자가 2시간 7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2주1회휴무자는 1시간 15분으로 가장 짧아 총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대중매체이용시간은 증가하였다. 교제활동시간은 격주휴무자/주2회휴무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긴 편이었으며, 주2회휴무자가 1시간 9분으로 가장 길었다. 참여봉사활동은 격주휴무자와 주2회휴무자의 경우 다른 휴무자에 비해 높은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나타냈다. 그 외 학습시간과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은 현저히 적었다.

한편 현재 주휴무제는 주1회휴무에서 격주휴무를 거쳐 주2회휴무로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격주휴무자는 주1회휴무자보다 총여가활동시간이 길며, 여가활동 중 대중매체의 이용으로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비율이 2.9% 높으며, 교제활동시간으로 소비하는 비율은 4.5% 높았다. 또한 참여봉사활동과 학습의 행위자율이 약간 높았으며, 종교활동, 관람, 스포츠, 기타 여가활동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격주휴무자와 주2회휴무자를 비교하면, 주2회휴무자의 경우 총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대중매체이용시간량(약 17분)과 교제활동 시간량(약 15분)을 비롯한 나머지 여가활동시간량이 길지만, 총여가시간 중 대중매체의 이용을 통한 여가활동 비율과 교제활동의 시간의 비율은 각각 8.4%, 1.8% 낮은 경향을 띤다. 또한 그 외 여가활동 중에서는 참여봉사활동, 종교활동,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의 행위자율이 각각 5%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기혼남성의 토요일 여가활동별 시간이 주휴무제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살펴보면(<표 4>), 주2회휴무자의 경우 대중매체이용을 제외한 여가활동의 평균시간, 행위자율, 행위자평균시간이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주1회휴무 → 주1회휴무 → 격주휴무 → 주2회휴무 순으로 총 여가시간의 증가하며,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대중매체이용시간은 격주휴무자와 주2회휴무자가 길었으나, 행위자율은 주2회휴무자의 경우 기타휴무제와 함께 낮은 수준이었다. 교제활동시간은 주2회휴무자가 1시간 4분으로 가장 길고, 이 두가지 여가활동은 총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격주휴무자는 주1회휴무자와 비교하여 대중매체와 교제활동으로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비율이 각각 5.8%, 1.4% 높았으며,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의 비율도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주2회휴무자는 격주휴무자와 비교하여 총여가시간 중 대중매체의 이용을 통한 여가활동 비율은 8.4% 낮았으며,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행위자의 비율도 낮았다.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과 학습시간의 비율은 높았다. 그 외 여가활동시간은 낮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무제에 따른 활동별 여가시간 사용에 있어서 남녀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대중매체이용시간과 교제활동시간이 증가하였다. 둘째, 주2회휴무자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의 여가활동에 있어 행위자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에 따라 행위자평균시간이 가장 길었다. 셋째,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봉사활동에 있어서의 평균시간, 행위자율, 행위자평균시간은 현저하게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주 5일제 근무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인식」(2001년 3/4분기) 연구결과 주 5일 근무제가 시행 될 경우에 휴일을 어떻게 이용할 지에 관한 질문에 가족과 보내기, 여행, 자기개발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역별 여가활동의 행위자율면에서 여성은 총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대중매체이용과 종교활동의 행위자율이 크게 증가하며, 참여봉사활동도 주2회휴무자의 경우 10%(남성은 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은 총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학습활동의 행위자율이 증가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2) 일요일

<표 5>는 취업 기혼여성의 일요일 여가활동이 주휴무제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각 여가활동 별 시간량을 통해 나타낸 것인데, 2주1회휴무 → 주1회휴무 → 주2회휴무 순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며, 주2회휴무자의 대중매체이용시간과 교제시간은 각각 2시간 34분, 1시간 5분으로 가장 길었다. 또한 종교활동이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학습시간과 참여봉사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에 할애되는 시간은 적었다.

일요일도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대중매체이용과 교제활동에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대중매체시간은 총여가시간이 가장 긴(약 5시간 10분) 주2회휴무자의 경우가 2시간 34분으로 가장 길었으나, 총 여가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은 49.8%로 다른 유형의 휴무제인 여성에 비해 가장 낮은 편이었고, 2주1회휴무자의 경우는 총여가시간의 59.8%로 대중매체이용으로 소비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교제활동시간은 주2회휴무자가 가장 긴 1시간 4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여가시간 중 교제활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타휴무자의 경우가 29.8%로 가장 높았다.

전술한 대로 주1회휴무자, 격주휴무자, 주2회휴무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격주휴무자는 주1회휴무자보다 총여가시간 중 대중매체이용시간과 교제활동의 비율은 각각 4.6%, 5.1% 크며, 다른 여가활동시간은 유사하거나 작았다. 또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스포츠 활동과 종교활동 시간의 변화도 나타났다.

한편 2일휴무자는 격주휴무자와 비교하여 총 여가시간 중 대중매체시간과 교제활동시간의 비율이 각각 9.9%, 3.8% 감소하고, 총여가시간 중 종교활동시간, 학습시간, 스포츠활동시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취업 기혼남성의 일요일 여가활동이 주휴무제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는지 살펴보면 대중매체이용시간은 주1회휴무자/격주휴무자/주2회휴무자가 길었으며, 이 가운데 주1회휴무자의 경우 3시간 38분으로 가장 길고, 총여가시간 중 해당되는 비율도 가장 높았다. 교제활동시간은 격주휴무자의 경우가 1시간 26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 두 가지 여가활동 이외의 여가활동 중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이 총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학습시간의 비율도 소폭 증가하였다.

주1회휴무자, 격주휴무자, 주2회휴무자를 중심으로 현재 주1일휴무제에서 시장노동을 하고 있는 취업 기혼남성이 격주휴무제와 주5일근무제로 변하면서 여가시간분배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1회휴무와 격주휴무를 비교하면 격주휴무의 경우 총여가시간 중 교제활동과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의 비율은 각각 1.9%, 3.8% 높으며, 총 여가시간 중 대중매체이용시간, 학습시간, 종교활동시간은 각각 1.6%, 1.7%, 0.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2일휴무자는 격주휴무자와 비교하여 총 여가시간 중 교제활동시간과 종교활동

시간, 스포츠 활동시간을 각각 0.3%, 2.3%, 5.2% 낮으며, 총 여가시간 중 대중매체이용시간과 학습시간은 각각 0.9%, 1.9% 높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상이한 주휴무제에서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취업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 구조와 여가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휴무제에 따른 생활시간구조를 살펴본 결과 여성은 시장노동시간, 여가시간, 가사노동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성은 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 모두 실제로는 성문화된 근로시간보다 긴 시간을 시장노동시간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휴무일에도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재의 주휴무제별 생활시간량을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변화될 주휴무제별 생활시간량을 예측해

<표 5> 취업 기혼남녀 주휴무제 일요일 여가활동시간

단위 : 분

주휴무제		2주1회 휴무		주1회 휴무		격주 휴무		주2회 휴무		수시 휴무		기타 휴무		F-Value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참여 봉사 활동	행동평균	0.0	0.0	1.2	1.3	0.0	0.0	0.0	6.6	1.3	0.0	0.0	0.3	0.66	1.40		
	duncan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0	0	1	53	0	0	0	3	1	0	0	3				
	B	0	0	135.4	67.5	0	0	0	200	122	0	0	10				
교제 활동	행동평균	61.2	30.4	78.5	52.0	85.8	63.8	84.4	64.5	62.1	58.0	65.5	50.5	3.48	2.64		
	duncan	B	B	BA	BA	A	A	A	A	B	A	BA	BA				
	A	63	49	70	63	70	75	72	65	61	65	65	60			**	*
	B	96.7	61.5	112.8	83.1	122.3	85	116.9	99.5	101.3	89.7	101.5	84.2				
대중 매체 이용	행동평균	152.1	87.5	218.0	146.3	209.2	134.1	212.5	154.1	150.3	118.2	140.5	106.8	23.22	7.30		
	duncan	B	D	A	BA	A	ABC	A	A	B	BCD	B	CD				
	A	88	78	94	91	95	86	94	93	90	85	84	83			***	***
	B	173.4	111.7	231.9	160.1	219.9	156.5	226.9	164.9	167.3	139.2	166.9	129.4				
학습	행동평균	0.0	0.0	7.5	2.9	4.4	2.7	12.1	1.3	1.3	0.0	7.3	0.0	3.64	1.29		
	duncan	B	A	BA	A	B	A	A	A	B	A	BA	A				
	A	1	6	5.3	0	4	2	10	2	1	1	4	0			**	
	B	40	96	142.7	0	115.7	150	127.5	60	132	30	191.7	0				
종교 활동	행동평균	7.2	5.8	20.6	25.4	18.0	30.0	9.1	38.6	7.3	20.1	12.5	19.3	4.80	2.10		
	duncan	B	5B	A	BA	BA	BA	BA	A	B	BA	BA	BA				
	A	5	5	12.5	16	12	18	7	24	6	11	8	18			***	
	B	158.6	40	164.6	160	150.9	168	127.8	159.5	113.2	183	165	110				
관람 등	행동평균	0.9	0.0	2.2	2.3	2.5	0.0	1.2	3.4	0.5	2.2	1.6	1.8	0.90	0.43		
	duncan	A	A	A	A	A	A	A	A	A	A	A	A				
	A	1	0	2	2	2	0	1	3	1	2	0	1				
	B	75	0	114.3	18	115	0	160	103.3	125	115.7	83.3	70				
스포츠 등	행동평균	32.2	1.9	46.6	9.7	62.2	8.6	40.0	15.4	27.0	8.2	27.6	2.8	6.70	1.89		
	duncan	BC	B	BA	BA	A	BA	CB	A	C	BA	C	B				
	A	27	5	40	12	42	11	39	16	25	10	31	1			***	
	B	118.8	40	118.3	79.9	146.7	80	102.9	73.7	106.3	77.9	89	36.7				
기타 여가	행동평균	49.7	20.7	54.8	26.8	43.0	20.7	64.8	26.2	54.4	24.6	44.2	33.8	1.96	0.76		
	duncan	BA	A	BA	A	B	A	A	A	BA	A	B	A				
	A	67	50	65	47	61	41	72	48	74	45	63	43				
	B	74	430	84.3	56.6	71	50.4	89.7	54.3	73.6	54.8	70.6	79.4				

*A : 행위자율 (%)

*B : 행위자의 평균 (분)

*P < .05 **P < .01 ***P < .001

본 결과, 주1일휴무제에서 격주휴무제로 전환되면 여성은 감소된 시장노동시간을 개인유지시간과 가사노동시간으로 이용하면서 여가시간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시장노동시간의 감소분이 대부분 수면 등의 개인유지시간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격주휴무제에서 주5일 근무제로 변화하면 여성과 남성 모두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면서 가사노동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일요일의 시장노동 행위자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사노동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을 감소시키면서 여가시간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주휴무제에 따른 여가시간구조를 살펴보면 여성은 교제활동시간, 대중매체이용시간, 참여봉사활동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성은 교제활동시간, 대중매체이용시간, 학습시간,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시간, 종교활동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모든 주휴무제에서 대중매체이용시간이 총 여가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나 참여봉사활동은 낮은 수준이었다. 대중매체시간과 교제활동시간을 제외한 여가활동 중 남성의 경우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 여성의 경우 종교활동에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시간과 참여봉사활동시간 등의 비율이 총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다. 이는 여가의 절대적인 시간량과 더불어 여가활동의 질적인 측면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시장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과 맨파워의 향상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주5일근무제를 법제화하는 문제가 막바지 단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본 연구는 현재 노동계와 정치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주휴무제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자의 시간 사용상 변화는 시장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양의 생활시간 범주간 이동 뿐 아니라 각각의 생활시간 범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이루어 졌다. 또한 이들 변화를 성별로 비교 분석하여 이루어 졌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변수에 의한 역동적인 변화를 알아보지는 못했으며, 다소 평면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주휴무제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관련 변수들을 도입하여 여가시간의 양과 여가활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주휴무제 중 수시휴무제의 조사대상자는 가내하청업과 재택근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근무시간은 보다 윤희통적이며, 자기재량적인 재택근무의 형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증가된 근로자의 자유시간이 개인, 가족의 생활의 질 향상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증가된 자유시간은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책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복지 측면과 여가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선진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여가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주5일 근무제의 도입될 경우, 접객, 숙박 시설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폐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여가환경정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과 남성의 여가시간의 차이는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와 관련한 조항의 시행을 감시, 규제하고 가사노동을 사회화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주5일근무제가 주 5일 수업제도로 이어지게 될 경우 취업 기혼자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육아이므로,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 탁아 시설의 설치 등이 요구된다.

셋째, 아직까지 우리나라 취업자의 주말 여가시간의 절반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계획적인 여가개념이 부족하고, 여가행동이 다양하지 못하므로, 자유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가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혼 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단위로 한 전국 대단위의 생활시간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자들의 여가시간은 절반 이상 대중매체의 이용으로 소비되며,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 시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각종 정보와 교양 그리고 오락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대중매체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텔레비전이 제공되고 있는 문화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간에 진정한 공동적 경험을 제공해주는 텔레비전 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2년 5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8월 06일

【참고문헌】

- 김광득 (1997). *여가와 현대사회*. 백산출판사.
 김사현 (1997). 「우리나라 餘暇文化의 原型 探究 : 東西洋 놀이문화의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관광학회지*, 23, pp. 193-207.
 김의숙 · 조희금 · 두경자 (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교문사. 내외경제신문(2002). 2002년 05월 01일자.

- 삼성경제연구소 (2001). 「주 5일 근무」실시의 전제조건. CEO Information (<http://seriecon.seri.org/>)
- 서병숙·임정빈 (1983) 「가정관리학」, 동명사,
- 성영신·정준호·고동우 (1996). 「여가의 심리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산업과 조직, 9(2), 17-38.
- 성유진 (1995). 「취업주부의 시간 갈등 수준 및 시간 관리 전략과 가정관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엘지경제연구원 (2000).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조희금 (1997).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pp. 1-14.
- 정영금 (1997). 「시간사용연구의 유용성과 발전방향」. 생활과학연구논집 제17권 제1호.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pp. 1-13.
- 통계청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 편, 2000.
- _____ (2001). 산업재해통계.
- 한국방송공사 (1985). 국민생활시간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한겨레 21. 2001년 10월 25일자 제 380호.
- 한경미 (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Deem, R. (1982). 「Women, Leisure and inequality」. Leisure Studies, 1, 29-46.
- Feldmen, L.P. & Jacob, H. (1981). 「The Use of Time :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7.
- Freysinger, V.J. (1995). 「Studing gender and leisure in later life :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Paper presented to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men and Leisure: Toward a new Understanding, Athens, GA.
- Gentry, J.W. & Mildred, D. (1979). 「Sex role Orientation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2): 102-111
- Gordon, C. & Scott J. (1976). 「Leisure and Lives; Personal Expressivity Across the Life Span」, in R. H. Binstock, and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
- Gorz, A. (1994). 「Which Way is Left?: Social Change in Post-Industrial Age」(Interview with John Keane), Capitalism, Socialism, Ecology, Verso.
- Horna, J.L. (1989). 「The Leisure component of the parental rol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1, 228-241.
- Hill, S. (1985). 「Investments of Time in Hours and Durables」 in F. Thomas Juster and Frank P. Stafford(eds.) Time, Goods and Wellbeing.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Kelly, J. (1986). 「Later Life Leisure: How They Play in People」. The Gerontologist, 26.
- Kelly, J & Freysinger. J. (2000). 「21st Century Leisure」. Allyn and Bacon.
- Parker, S. (1983). 「Leisure and Work」, London: Goerge Allen & Unwin. Reinhard.
- Robinson, J.P. (1977). 「How American Use Time」. New York : Prager Publisher.
- Shaw, S. (1985). 「Gender and Leisure :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Leisure Tim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4), 266-282.
- Shelton, B.A. (1992). 「Women, men and Time -Gender Differences in Paid Work, Housework and Leisure」. Contribution in Women's Studies, No. 127, New York. Greenwood Press.
- 令井光映 (1981) 「家庭經營學」, 放送大學教育振興會,
- 祖父江孝男 (1974). 「人間とレジャー」東京 : 日本經濟新聞社.
- 天野寛子·伊藤 セツ (1994). 「生活時間と生活文化」. 東京. 光生館.
- 天野寛子·伊藤 セツ·李基榮 (2001). 「生活時間と生活意識」. 光生館.
- 日本餘暇センター (2000). 「レジャー 白書' 2000」.
- 日本労働研究機構 (2001). www.jil.go.jp
- 日本 労働省 (1991) 「労働時間白書」.
- 山本吉人 (1975). 「労働時間制の法理論」. 東京. 総合労働研究所.